

가와사키부네

가와사키부네는 돛이 달린 튼튼한 목조 트롤선으로 거친 바다에서도 배를 저을 수 있는 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. 가와사키부네는 에도시대(1603~1867 년) 후기부터 1945 년까지 후쿠이현에서 홋카이도에 이르는 일본해(한국 동해) 연안에서 사용되었습니다. 메이지시대(1868~1912 년) 동안 가와사키부네는 주로 근해 대구잡이에 사용되었으며, 혼슈와 홋카이도 간의 교역과 정착민 수송에 이용되었습니다.

구시로시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배는 실물보다 크기가 작습니다. 이 배는 1983 년 구시로시립박물관이 개관했을 때 이 지역의 배 목수인 히라이와 하지메(平岩一) 씨가 건조한 것입니다.